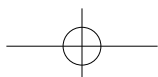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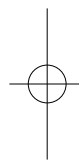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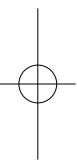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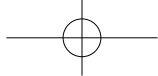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For His Pleasure



for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His Pleasure
For His Pleasure

Dr. Samuel C. Gipp 지음
김 영 군 옮김



KJ 강제임스
KingJames

For His Pleasure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2014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 은 이 | Dr. Samuel C. Gipp

옮 긴 이 | 김영균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4. 4. 1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이종열 av1611@naver.com

디자인편집 | 김화영 korea95@emp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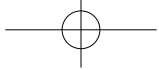
■ ISBN 978-89-89741-71-8

■ 정가 6,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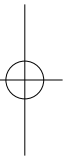
CONTENTS

서문	7
제1장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가?	9
제2장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34
제3장 하나님과 인간	48
제4장 성장과 출생	55
제5장 거룩함과 분리	82
제6장 그리스도인의 갈망과 형식적인 신조들	100
제7장 성경 지식과 성경의 무지	117
제8장 그분의 궁극적인 즐거움	137
제9장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나면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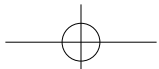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서문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음악 타락했고, 옷차림에 대한 기준도 사라져 버렸으며, 도덕적인 문제들도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들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상당히 의문시될 만한 여러 가지 불미스런 행동들에 대해 마치 구령이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물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구령은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변명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거짓 교리란, 구령이 성경의 핵심주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구령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구령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령에 대한 열정을 억제하고자 이 책을 집필한 것이 아

나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우려는 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눈을 창조주에게 두도록 하고, 창조주로부터 그들의 눈을 돌리지 않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령이 기독교의 유일한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고, 구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훨씬 더 큰 계획 중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혹여 구령(Soul Winning)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잘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령을 비판한다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도로서 구령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성경의 핵심주제는 아닙니다. 부디 더 넓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장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가?

구령의 중요성

구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받아야 하는 혼들에게 있어서 구령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점입니다(마 28:19). 개인적으로 그 복음 전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 자연적으로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마 28:19).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행 2:46). 그러나 우리가 이 임무를 게을리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마 25:41)?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수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쳐서 교회들에서 구령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구령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약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 책은 지나치게 구령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과거 어느 시점, 어느 곳에서 선언했던 “구령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주제다.” 라는 짧은 문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구령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이

런 주장을 부인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핵심주제란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왜 중요할까요?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면 이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를 비록 선의이기는 하지만 빛나간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성경의 핵심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핵심 주제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 조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고, 그분의 핵심주제가 우리의 핵심 주제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답변을 찾아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령이다” 라는 가르침은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혼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70년대 미국 근본주의의 부흥과 쇠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미국 전역에 걸쳐서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그것은 그들이 추진했던 열정적인 구령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교회들이 수천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같은 시설들을 지었고 또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인원들이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교인수도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에는 교회에 다가가서 못한 사람들에게 버스 사역이 가장 중요한 복음전파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혼을 구령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당신이 구령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일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잉크하

고 종이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구령에 관한 기술과 열정에 관한 책들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쳤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내년(next year) 오실 수도 있는데, 따라서 구령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70년대의 그 열정은 조금 가라앉았으므로, 많은 체육관 같은 거대한 예배당이 뒤쪽의 장의자 20-30줄 정도를 사람들이 앉지 못하도록 로프로 묶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을 강대상 앞쪽으로 좀더 가까이 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줄어드고 사람들 간의 공간은 넓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체육관식의 예배당을 축소시키는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적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숨기기 위한 노력으로 의자를 적게 놓거나 아니면 간격을 띄엄띄엄 놓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줄어든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체육관 같은 큰 예배당에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향 곡선이 있기는 했지만 구령의 중요성에 관한 가르침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회중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깥으로 나아가서 어떤 수단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잃어버린 혼들을 얻어 오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요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들이 옛날에 성장했던 교회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여전히 구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그대로 남긴 채 다른 교회들이 구령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령과 관련된 내용은 추천할 만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구령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은 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구령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아주 전형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즉시 답변합니다. 그들의 답변은 다른 생각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구령하기 위함이지요.” 구령, 구령, 구령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령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구령이 옳은 것이 틀림없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란 우리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핵심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나, 그 이유가 과연 구령하기 위해서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라면 거침없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지요. “구령이지, 구령, 구령.”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은 못됩니다. 그 구령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질문 중 어느 것이라도 대입하여 답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구령!
2.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구령!
3.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령!

당신이 구령에 대해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령이 이 질문들에 대한 흡족한 답이라는 결론을 이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구령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 봐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그 질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유효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일주일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순간마저도 어떻게든 인간이 빨리 타락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왜? 그래야 구령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정확한 의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분명한 계획이라고까지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서 사탄과 이브의 대화를 엿듣고 계시면서 사탄을 응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서 타락하도록 예정해 놓으신 그 인류를 구원할 기회만을 엿보고,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변명으로 이런 어리석은 추측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운명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의도하셨다고 또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록 구령이 좋은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존재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령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것은, 그래서 비록 선의이기는 하나 잘못된 목적과 바뀌어버린다면 두 가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리게 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올바른 목적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는 슬픈 결과를 가져온다

성경의 핵심 주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한 잘못된 목표를 세우면 슬픈 결과가 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책의 목적은 구령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령의 중요성을 폄하할 그런 취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 책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령인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의 실제 핵심 주제보다 구령을 더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강조가 됩니다. 구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지나친 강조가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갈망이나 이유를 구령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구령보다 더 높여지거나 또는 구령과 동등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은 구령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구령은 귀중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핵심 목적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구령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몇몇 오류들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죄악 된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1. “나는 항상 혼들을 위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한 갈망과 목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것으로 또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구령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구령에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목표를 갖는 셈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그 잃어버린바 된 죄인에 대해서 주먹을 꽉 쥐고 계신 하나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바 된 그 한 혼이 지옥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모습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 내기 위해서 구령하는 자들은 잃어버린바 된 자들에 대해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잃어버린바 된 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같은 그의 사랑에 의해서 압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무는 그러한 구령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제발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거꾸로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 앞에 죄인이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죄인에게 제발 구원을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는 부탁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 자, 여기 보니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구령자가 관심을 안 보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거짓 울음을 울면서 자신과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구령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들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자신의 찢어지는 가슴은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갈망, 동일한 부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죄인들의 완고함에 마음이 상해버려서 너무나 처량하게 훌쩍훌쩍 우는 그러한 작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입장은 무엇일까요? 시편 2:4은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 공군이 히로시마라는 일본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3일 후 8월 9일 두 번째 폭탄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8월 10일 미국의 평화협상자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무어라고 제안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제발 좀 빨리 항복하라고 아주 간청을 하고 손을 짹짹 빌면서 애원하고 주먹을 짹 쥐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까? ‘오 제발 이 평화 제안을 거부하지 마세요.’ 라고 빌었을까요? ‘당신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 당신들에게 있을지 그 생각만해도 나는 도저히

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까요? 결코 그들은 애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평화 협상 자들은 자신만만하게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간단하게 이와 같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버섯구름을 맛보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인들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훌쩍거리거나 징징거리거나 짜증을 내는 또는 제리과자같이 물렁물렁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제안을 거부할 만큼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는 당연히 불 호수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 호수로 가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초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상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들은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할리우드 또는 워싱턴 시에 살면서 고의로 마귀를 섬기는 악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순진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도록 저주했던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2.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하라.”

지겹도록 외쳐대는 이러한 선언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입에 줄줄 암송하고 다니는데, 그들은 이것이 마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럴싸한 이런 말들을 가지고 동성애자들도 옹

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경건한” 동정심을 자신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 자들을 아주 증옅합니다.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인보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동정심이 부족한” 설교자들에 대해 그들은 더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설교자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인들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즉시 아주 악한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호도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들은 이런 저런 끔찍한 죄들을 다 용납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즉 그들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잠언 6:16-19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하는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7:11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시편 37:12-13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 줍니다. 시편 34:16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잃어버린바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워드 스텐(Howard Stern)은 사랑하시고 그의 죄만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만약에 래리 프린트(Larry Flynt)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만 미워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이 올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로 인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당신에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죄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구령을 매우 잘하는 설교자가 이와 같은 선언을 설교시간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바 되지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결코 잃어버린바 되지 못했다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르침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가르침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아담의 죄를 “축복받은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구속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껏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자들이 자기들의 죄와 악으로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편 중독자였다는가, 아편 밀매자였다는가, 오토바이 폭주족이었다든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간증은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은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거에

악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그런 과거가 없이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것은 더 좋은 간증인데도 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한 그리스도인과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2m 정도의 키에 100kg 정도의 거구의 사람인데 그는 아주 마음이 순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입장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고 어떤 폭주족들의 머리에 손까지 얹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주족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욕지거리를 했다고 그들에게 손찌검을 할 정도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아주 순진한 표정이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펜실베이니아의 한 농장에서 살았는데 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구원받았었고 그를 매주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아주 이른 나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저를 쳐다보면서 자만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에 담배 한번 쥐어본 적이 없고요, 맥주를 한 컵도 마셔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간증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더러운 행동을 하다가 거듭난 것보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자가 구원받은 것이 더 낫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구속을 필요로 했던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며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릴 때에 구원을 받아서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가치”에 대한 이런 추상적인 접근은 그 어떤 열심 있는 구령자들도 감히 인정하지 못할 그런 정도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인간

은 잃어 버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크게 봉사한 셈이 되겠지요. 그러나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잘못하면 그보다 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짜 영웅은 가롯 유다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큰 은총을 유다가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죽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핵심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4. 부도덕한 구령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경건한 큰 부담을 보여주는 몇몇 설교자들이 이상하게도 도덕적인 삶은 전혀 살 수 없는 무능력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목사,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들에 대한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지경이고 너무나 분명해서 덮어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의 핵심주제를 가장 잘 성취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느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니까? 그들은 바로 위에 언급한 그 이유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령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구령이라는 “선”이 자신들이 행한 간음이라는 “악”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불법적인 남녀 관계에 있는 구령자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구령이 얼마나 선한 것인데 그 조금 나쁜 짓 했다고 무엇이 그리 잘못된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결론은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고귀한 그 임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령을 해도 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5. 숫자 채우는 재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지나친 구령제일주의자들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지옥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구령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를 구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0명, 혹은 300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령했다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 증거를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의도적으로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는 그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한 유명한 구령자가 구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머리를 숙이고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너무 당황해서 그들도 머리를 숙여서 영접 기도를 따라할 것이란 말이지.”

저는 구령에 매우 열정적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자

기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사람들을 구령할 때, “아니다. 난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할 기회를 아예 주지 말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그들에게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래 믿겠어’, 라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믿지 않겠어’란 것을 선택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면, 그들의 선택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자동차 대리점 창가에서 안을 구경하다가 진열장 안으로 들어가 새로 나온 세단에 앉아보았는데 그때 자동차 세일즈맨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다가와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군요? 그러시죠?” 하며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때 당신이 “예, 정말 이 차 멋지네요.” 라고 말한 뒤 그 대리점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그 자동차 세일즈맨이 그 번쩍번쩍 빛나는 세단을 당신의 집으로 끌고 와서 “당신이 구입한 새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 값은 35,000불입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항의하겠지요? “나는 그 차를 사거나 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소!” 이때 그 교활한 자동차 세일즈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세일즈맨” 같은 구령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한 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 가치 없고 속임수 같았던 기도를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술을 옹호하면서 한 유명한 구령자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당신이 하늘나라로 이끈 사람들보다도 지옥에 보낸 사람들이 더 많으면 어찌럽니

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나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 똑 같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갔을 때, 당신이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이 얼마나 당황할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6.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도지

구령제일주의자들에게는 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령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가치 없고 심지어 배교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현상을 전도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에다 텔레비전을 들여다 놓는 그 다음날부터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의 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종 받게 됩니다.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뉴스나 틀어놓고 그 뉴스 진행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이런 예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하워드 스텐(Howard Stern, 라디오 DJ)이 자신의 악한 상상력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마음껏 떠들어도 대중매체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자들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지 화이트(Reggie White, 미식축구선수)가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자 마피아 같은 텔레비전 뉴스 회사가 아주 극도로 분노할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자들도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저 사람 조금 더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찌 저 모양이야? 하며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아주 못된 범법자가 도망치는 것을 붙잡아 굴복시키기 위해서 곤봉으로 때렸는데 그 사람이 하필 흑인이어서 방송에서는 그것은 인간을 증오하는 범죄라고 외쳐댁니다. 반면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한 열네 살짜리 소

년이 기도하고 있는 네 명의 십대를 총으로 찢 죽였는데 뉴스 방송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미국 시청자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다가 텔레비전 회사가 심어주는 대로 똑 같은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시11:3). 미국은 기초들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유산을 다루는 전도지라든가 미국이 좀 더 순결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도지라든가 윤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도지는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대주의적인 것이고, 배교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구령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 전도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2-3 순서대로 따라하는 기도”가 없는 전도지면 다 비난 받습니다.

7.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구령제일주의자들 중에는 자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다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떠난 후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셨다면 그가 다시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살아 있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마귀가 그를 죽여 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혹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구령제일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계속해서 깊이 다루셔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회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 빨리 돌아와서 구령 숫자를 위로 올리는 것에 더욱 집착합니다. 구령을 몇 명 더 했는지가 그 사람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구령 점수를 올려 우승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8. “오늘밤에는 구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일날 모임을 주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가족은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와 내 아내와 세 아들이 어느 날 일요일 아침 어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양복에 타이도 매고 또 내 아내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들어갔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은 성경을 들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요점을 전할 때에는 우리도 “아멘” 이라고 호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 그 교회에는 모두가 그 교회 기존 멤버들이었고 방문객은 오직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그 목사님은 구원 설교를 하더니만 잃어버려진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

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하는데 아, 내가 알아차린 것은 우리를 부르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예배 설교에는 무언가 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다른 주제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설교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날 때 저녁 예배의 설교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밤에는 구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서 저녁에는 진짜 설교를 들어볼 소망을 가지면서 다른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교한다며 자기 설교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구령, 구령, 구령”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시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산부인과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교회는 영적인 갓난아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는 애기 받는 산파 일만 하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충분히 영적인 음식으로 먹이지 않아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지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왜 신학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그들을 돕지 못했을까요? 그 신학대학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학” 대학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침례교회의 표식” 즉 구령, 지역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모교(Alma Mater)에 항상 충성해야 된다고

그들의 졸업생들에게 가르칩니다(저자는 지금 미국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빼고는 “우유목욕” 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그 “처녀 어머니”(Alma Mater(모 교)라는 라틴어의 영어 단어가 Virgin Mother(처녀 어머니)임)로부터 독립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게으른 성경학교 졸업생들은 성경공부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위협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졸업생들의 개인적인 성경공부로 그 대학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감히 나아간다면 그는 동창회에서 자기 위치가 위협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책이 동창회에서 자기의 지위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아주 열정적인 구령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안전한 일입니다. 그는 구령을 해야 할 필요성과 구령을 해야 한다는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규칙적으로 구령하지 않는 사람들을 징죄하고 그리고 그 맹목적인 열심 가운데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교조적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령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다. 탄 것은 공부할 생각을 말라.” 결국 그는 자신의 성도들을 영적인 무지로 몰고 갔고 결국 항상 아이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보다 더 성장해 버리면 그 목사는 그들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죽여 버립니다.

9. 복음전파의 죽음

성경에 대해 이렇게 너무나도 알팍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 복음

전파 자체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복음전도자입니다. 성경적 복음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부하는 이상한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A biblical evangelism]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3년 단위로 미국 전역을 여행합니다. 18개월은 미국 동부에 있고 18개월은 서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트레일러를 끌고 매주 다른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마을에 와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령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인 것처럼 정례화 시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복음전파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전도자의 사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성경적 복음전도자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엡 4:11-12)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세 가지로 목사의 사명과 똑같습니다. 목사와 복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동일한 성경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1)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 (2) 섬기는 일을 하고(섬기는 일(Ministry)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 세 가지 사역 모두는 잃어버린바 된 세상과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지, 영적 산부인과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저의 부르심은 목사와 똑같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일년에 한 주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목사는 매주 그것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복음 전도자가 매번 집회마다 수백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복음 전도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무엇인가 타락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 복음 전도자들이 비판적인 신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의 무 오류성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2) 성경이 정확 무오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3)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무언가를 성경으로부터 전혀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그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십대 소년들이 아무런 활동 매뉴얼도 없이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영적 재생산뿐입니다.

(5) 이제 그들은 영적 재생산을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령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결국 성경적 복음 전도자의 사역은 이제 겨울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성경적 복음 전도자의 변질(mutation 돌연변이)때문에 영적 양식이 될 만한 그런 성경공부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고, 구령이 그 자리를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교회로 오면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튼튼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고 강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이가 일어나서 모든 복음 전도자와 설교자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규례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갓난아이들이 태어났는가에 근거해서 목사의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도들간의 결혼과 구령을 동등하게(equivalent) 중요시 여겨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설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설교를 듣고 간음하는 것을 멈추고 포기한 믿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런 예들은 제가 사람들에게로부터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오직 구령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밤낮 구원 설교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구령제일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몇 명 구령했는지 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 “지난주에 당신이 파경에 이른 부부의 결혼생활을 얼마나 다시 회복시켰소?” 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어떤 목사가 일어나서 “지난주에 한 명 구원 받았고, 위기의 두 부부가 다시 화해했고, 자살하려던 형제

하나가 다시 새롭게 출발했고, 간음을 저지르기 직전이었던 한 여자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간증을 하면 아마 목사들이 무척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은 그러한 결과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위협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구령제일주의자 중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주 자기의에 들떠서 구령으로 그들 모두의 관심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10. 잃어버린 자들! 진리의 권능

진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구령으로 전부 대체시켜 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이룰 수 있는 그 권능에 대해서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적인 작업은 다 행합니다.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필요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꼭 설교에 나온 주제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면 비록 강단에서 그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했던 교회들마다 회중들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수년 동안 권면해왔습니다.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성경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매일 1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시건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저는 이 성경읽기라는 주제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설교였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구령제일주

의자들은 끔찍하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날 무렵에 세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몬타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 역본들의 부패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표를 하나 그리고 여러 번역본들을 큰 소리로 읽어갔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을 “개선”한다고 소위 말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몇몇 교리들은 그 부패한 성경 본문들의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회중 가운데에는 구원받지 못한 로마 가톨릭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로마 가톨릭교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에 그녀가 앞으로 나오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진리의 권능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설교에서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실 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교한다면, 성령께서 예배 시에 이루시는 역사로 인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구령은 중요합니다. 구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아닐 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2장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긴 머리로 덮여 있는 철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자신을 살게 하셨는지를 한번쯤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왜 그 구절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할까요? 단 한 구절로 당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말해 준다면, 또 당신이 전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면, 그 구절이 당연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편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령, 구령, 구령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인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또 아주 느슨하게 포장한 소위 철학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느슨하게 포장된 철학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희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도달하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요한계시록 4:11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 짧은 찬양의 선언은 하늘에 있는 스물 네 장로가 하나님을 향해 외친 찬양인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같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만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모든 창조물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역주)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180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그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당신이 지난주에 했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요구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워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창조주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무슨 성공을 해 봐야 그분께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소프트볼 경기에 나가서 우승 트로피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

빠하십니까? 저실을 아주 멋지게 꾸몄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구령, 구령, 구령만 외치는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점이 180도로 정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구령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피하게 해주려는 동기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한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갈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엄청난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2) “구령, 구령, 구령”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바는 오로지 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의 구원을 시작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 역시 참된 삶의 첫 걸음이지 끝이 아닙니다.

(3) 구령제일주의자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들은 그 다음 구령을 위해 달려갈 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는 혼자 알아서 성장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막 영적인 출생은 했으나 양육하는 자 없이 버려진 상태입니다.

(4) 구령제일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모든 교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고 새로 회심한 사람을 자라게 하는 데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구령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만을 반복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모자(母子) 가정에서) 생활 보조금을 받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공통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를 키울 줄은 전혀 모릅니다. 아이를 뱃속에다 가지고 있는 기간은 그 아이가 실제로 태어나서 살아갈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키우는 기간은 너무나 많은 노력과 인내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답할 줄 아는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주 천천히 매일매일, 한 주간 또 한 주간, 한달 또 한달 계속 가르치고, 한해 또 한해 꾸준히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9개월마다 새로운 아이를 생산해 내는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우리가 앞서 답변을 찾고자 했던 세가지 질문들의 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핵심 주제 즉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의 조명을 받아서 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창조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 (2)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 (3)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쁨.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창조주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인생에 관한 모든 질문들을 만족시켜줍니다. 문제

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인간들로부터도 기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스텐(Howard Stern), 래리 프린트(Larry Flynt) 같은 자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같이 실패작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돌프 히틀러도 아주 어렸을 때 매우 귀여운 시절도 있었겠지요. 아마도 그 부모님들에게는 그 아이(히틀러)도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재잘 재잘대고 킬킬거리고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도록 했겠지요? “정말 예쁘다. 그 놈 참 귀엽다” 그러던 그가 자라난 다음에 무엇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잔인한 살인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갓난아이의 출생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예쁘게 태어난 것이 그 아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주님께 신실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새로운 회심자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로부터 자신을 정화시키고 평생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잘 성장해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목사들 중에서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는 성공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많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어린아이의 미래 언젠가는 자기를 파괴하려는 성향이 강한 시기가 올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

리는 그것을 “사춘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정말 귀엽던 아기가 15-16년쯤 지나면 마약도 하고, 사생아도 낳고,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출생이 그들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망쳐진 애들이 거리에나 마트에서 욕지거리를 하거나 가정에서 부모에게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아이들도 어렸을 때엔 귀여웠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갓난아이들은 누구나 다 귀엽습니다. 그러나 거칠지요.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입에 있는 것들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토하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안되면 신경질을 내면서 울부짖고, 속옷에다가 끄적한 것들을 해 놓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런 짓들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갓난아이일 뿐입니다. 둘째, 그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거친 짓을 해도 여전히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원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 “귀여웠던” 단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에서 그 사람 옆에는 앉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 아이들을 잘 키워서 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하도록, 적절하게 도울 수 있도록, 이 지상에 위대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이 땅에 두셔서 올바르게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들이 한다는 것이 고작 아이들만 만들어 내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키우지 않는다면 그 어린 아이들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자라난다

할지라도 지적으로는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귀엽습니다. 특히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에는, 때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엉뚱한 일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신경질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이 지상에 위대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들이 한다는 것이 고작 아이들만 만들어 내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키우지 않는다면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몇 초면 충분합니다. 출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들의 영적 성숙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무엇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자기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것을 배웠을 때, 앞가림을 할 줄 알 때, 오줌이나 똥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가서 자기 신변처리를 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신발 끈을 혼자 스스로 묶는다든가, 자기 옷을 혼자 입었을 때, 자기 방 청소를 했을 때, 그때 당신은 그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겠지요. 이런 일들을 할 때 당신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읽는 것을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렇게 자란 그들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생산할 뿐만 아니라 소득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

엇인가를 충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내 아들들은 아직도 자기 어머니에게 주고 싶을 때에는 들꽃을 꺾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자라나지만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는다면 그의 정신적 성장이 지체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한 살 때에는 자기 뜻대로 안되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흔 살이 되었는데도 머리의 지능은 한 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폭력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교회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경 말씀이 우리 안으로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적어도 열 장씩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당한 분량의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집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가야 한다고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설교가,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를 그만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찢림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21세쯤 나이에 구원을 받은 어떤 전형적인 이 세상의 젊은 청년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 사람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피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젊은 회심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어딘가를 보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수치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른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단정하게 머리를 깎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등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겠지요.

그 다음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더럽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흰 와이셔츠를 사고 넥타이도 삽니다. 그러면 그의 변화된 삶에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겠지요. 그는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입은 티셔츠에 쓰여 있는 “버드와이저(Budweiser)”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입고 다녀야 될 옷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바꾸어 입었지요, 그는 사용하던 말투와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농담도 바뀌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각각의 변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시간이 흘러 그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갓 구원받은 어린이들의 주일학교 선생을 맡습니다.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직장 일을 끝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신문 판매대로 가서 신문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런데 포르노 잡지가 그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부인을 배반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이번 한

번뿐이야.”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행할까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자그마한 개인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다 들킬 거야” 라는 위협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들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육신입니다. 만약 마귀가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빌 3:21)까지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만, 이 인생의 영적 전투에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우리를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책은 영적인 본성을 지닌 책인 동시에 영적인 권능을 지닌 책입니다. 육체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의 단어들이 우리의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들은 우리의 육신을 거슬러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 욕심, 악의, 의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육신의 생산품인데 그것들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사악함을 억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경읽기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이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매주 한 번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경건치 않은 것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사악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과녁의 정중앙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것이고, 그 과녁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화살을 쏘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화살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원 설교만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면 당신의 영은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찢림을 경험할 수도 없고 당신의 악한 행위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혼을 구령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기만 한다면 “구령, 구령, 구령!”을 외치는 사람들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부도덕한 것들이 억제되고 제거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을 저버리고 당신의 육신으로 하여금 죄를 탐닉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설교자들이 어떤 순간에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들키면 어찌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을 만드신 분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 한다면 설교의 주제도 매우 다양해집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강단이 성도들을 구

령과 십일조로 이끌어 가는 무기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설교에서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제때에 빚을 갚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사가 자기 회중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 넘어서, 하나님의 갓난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분리시키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 침례,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의 무오류성 등은 우리의 강단에서 아주 천둥처럼 퍼져나가야 할 진리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더 깊은 것들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이 단지 그 한 페이지에 쓰인 단어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경에 폭 잠기도록 해 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베일에 가려진 것들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였는가?
- ※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증명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
- ※ 루시퍼가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찬양대 대장이었지요?)
- ※ 그런데 그 루시퍼의 타락은 언제 발생했는가?
- ※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에게 주어진 빵 덩어리 두 개는 무엇을 의미한 것이며, 왜 세 덩어리를 가져가다가 한 덩어리는 그에게 주지 않았

왔는가?

이 질문 내용들은 연필깎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번데기가 어떻게 나비로 변화되는지, 어린 애들이 물어보는 겉보기에는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러한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경 안으로 깊이 파고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성경 안에서 독자들을 기다리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하고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사회주의와 휴머니즘을 아이들에게 세뇌 시키는 기관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는 사탄의 대리인 노릇을 하며 저주받을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단순한 이유, 즉 아는 것이 없어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벌써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 위해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교수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냉정하고 어려운 삶의 여러 사실들을 배우지 않은 채 그들은 선생이 되어서 첫 번째 수업을 하게 될 때 진퇴양란(dilemma)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르쳐야 할 과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론이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성적인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을 속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론들밖에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은 하는데 세상 학교 선생님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신약 개론 수업시간에 들은 알팍한 것 외에는 그 이상의 성경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성경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령입니다. 혹은 그들이 몇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보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공부를 하다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다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독자 노선을 걷다가는 모교 동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갓난아이 몇몇을 모아 놓고 그들을 먹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령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4:11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결국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성경에 대한 무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갓난아이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수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한 채 기저귀를 차고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제3장 하나님과 인간

구령제일주의 철학이 세워진 그 기초는 사실은 미묘하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한 혼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구령제일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한 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그러면 열심히 구령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고 점점 아래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죄성은 쉽게 발견됩니다. 죄악 된 쾌락을 향한 인간의 갈증은 마치 라스베이가스 다운타운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너무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사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악함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인데 어떤 이기심은 아주 쉽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아주 교묘해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교묘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제일 앞에다 놓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다 끼어들고, 줄 서있다가 새치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려 하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가벼운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약점들은 금방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점들이 줄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숨어있는 이 교묘한 이기심이 구령, 구령, 구령을 외치는 그 사상 속에 가장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구령하라, 구령하라고 자꾸만 부추기고 우리를 달달 볶는 소리를 들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뿐일까요? 사실은 그 속에 무언가 더 있습니다.

구령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 영원한 고통의 운명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책감에 두려움을 살짝 섞어서 “구령이 성경의 핵심 주제” 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들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해 내려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만약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령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 내려고 시도하는 셈이네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령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악당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봐 친구,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소”

오늘날 구령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단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합니다.

- (1)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잘 보십시오.
- (2) 만약 구원받게 되면 당신이 얻게 될 것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실 것인지 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지 못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이 방정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얻으실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끝까지 구령만 고집부리는 사람은 외쳐대겠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그 구령을 왜곡시키고 가져다 맞추려는 시도 이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신자로 교육을 받고 자라났는데 제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직후 다음 두 가지 가정, 즉 대부분 새로운 회심자들이 갖게 되는 편견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 나의 친구들과 가족이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주면 그 사람들은 정말 관심을 보이고 흥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비록 내 친구와 가족들이 반대하고 또 무관심했지만, 나는 신실하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복음전도의 대가라고 하는 존 라이스(John R. Rice) 박사를 데리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복음을 수년 동안 들어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을 거부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받을 갈았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

다. 부모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머니, 아버지께서 구원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끈질기게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 이 기도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지했지만 무지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력이 없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왜 효력 없는 기도입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제 기도가 효력이 없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할 때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혼들”만 생각하라고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들이 회심을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으실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부모님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고 그들이 영원히 불타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구령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헐박하고 또 위협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니까 다 자란 사람들이 강대상 뒤에 서서 모든 혼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 거짓 눈물을 짓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최우선” 시 하는 이 철학은 오늘날 교회나 신학교에 만연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와 같은 철학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단(heresy)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보호기금인 UNICEF도 마찬가지입니다. UN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NATO도 마찬가지고, 심장병 재단도 마찬가지고, AIDS 연합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어느새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지 누가 관심이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 대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개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구령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기 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향한 저의 부담 속에 얼마나 이기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했고 그 결과 기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중단하고, 저는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그분이 겪은 고통과, 수치와, 십자가의 끔찍함을 생각했고, 주님께서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가치가 있으려면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

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헛된 행위가 되고,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이 쓸모없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고, 그분의 고통을 효력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님, 제 부모님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루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만약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다면 계시록 4:11의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부모님도 결국은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가 기도를 바꿨기 때문인지는 보장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1982년 9월 19일 저의 부모님은 내가 목회했던 뉴욕 어번(Auburn)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앞으로 나오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바꾸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Conforme 따르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몬타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 기도를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4주 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여인이 저에게 와서 바로 그 몬타나에 있었던 그 교회에 자기도 있었다면서 그 기도에 대한 관점을 듣고서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2주 후에 그녀의 딸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들은 체험이 있

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얻으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마치 뱀사람처럼 늘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았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 밤부터, 즉시 그 입에서 저주를 멈췄습
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후 여생을 10년을 더 사셨지만, 하나님의 이름
을 헛되이 부르는 것을 그 뒤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의 변화로 인해서 기뻐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
다. 인간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만 구원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
가를 구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지옥의 불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계시록 4:11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
작일 뿐이요,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지위를 드높이는 일을 당장 중단해
야 합니다. 인간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
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얻을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심할 때 생기는 우리의 기쁨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
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
리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혼들이 지옥
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
야 합니다.

제4장 성장과 출생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든지 아기들은 다 좋아합니다. 애들은 깔깔대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누구나 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창조물이 집 안에 하나 둘씩 더해지면 참 복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들이 시간이 흘러도 전혀 자라나지를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 손녀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손자 손녀들을 그들의 부모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부모가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자 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애들이 자라지 않고 늘 갓난아이들처럼 울고 있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들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아기는 정상이고 건강하고 귀엽습니다. 아마 젊은 부모는 아주 기뻐 흥분하겠지요? 얼마 후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태어나고요, 그 애들 하나하나 다 귀엽습니다. 여덟, 아홉, 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기들이 아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한 살, 혹은 두 살 때의 상태로 멈춰 있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온통 더러운 기저귀와 오물들로 가득 차고 애들이 싸우고 짜증내고 우는 소리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젊은 부모가 얼마나 좌절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

오. 갓난아이는 귀엽습니다. 그러나 그 갓난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갓난아기로 멈춰 있는 것은 귀엽지 않습니다.

구령제일주의자들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혼을 얻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영원한 불 못으로부터 한 혼을 건져 내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짜 갓난아이처럼 영적인 갓난아이라도 항상 귀여운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로 가득 찬 교회는 속물근성으로 가득 차서 안에서 싸우고, 나가서 싸우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내팽개친 갓난아이들의 난잡한 일들로 항상 시끄러울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아주 신선하고 기쁜 일이기에는 하나 그들이 영원히 어린 아이로 머문다면 그것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회중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회중들에게 일종의 강압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설교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회중들로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오지만 목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회중들을 정죄합니다. 회중 안에서 어떤 성도가 목사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목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자기가 목사보다도 더 영적이라고 어떤 성도가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한 영적인 어린아이에 의해서 언젠가 추월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 그 목사 앞에 그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본 것과 우화

같은 목사의 설교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그 목사는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주장한 내용이 훨씬 더 올바르다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할 것이고 그때 다음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 질문 따위는 하지 말라.” 이와 같이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한 그 어린 아이가 목사에게 의해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는 목사를 극복하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위협을 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상적이고 게으른 목사에게는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회중들을 속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The Greek)”입니다.

게으른 목사가 성경을 공부하는 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공부하는 성경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손에 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같은 방 안에서 헬라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성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헬라어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성경에 관한 무지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1) 헬라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보냈을 것이고, 분명 공부 많이 하셨을 거야, 아마 헬라어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2) 헬라어는 외국어이고, 성경에 쓰인 헬라어는 현대 헬라어와도 다르기 때문에 혹 헬라어를 아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이 사용한 그 동사 변화법은 틀렸어요.” 라고 지적하더라도 그 목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회중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헬라어를 모르는 나에게는 다 마찬가지야.”

(3) 헬라어를 근거로 강론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엉터리로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헬라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 게임에는 규칙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은 항상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헬라어의 어떤 단어가 일곱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면 킹제임스성경이 번역한 것만 빼고 나머지 여섯 가지 뜻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번역이 하나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그 목사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회중에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구절에 들어 있는 동일한 단어를 두 명의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24시간, 즉 하루 이틀 상간에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킹제임스성경을 서로 다른 단어로 변경했는데, 두 사람 간에도 일치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두 사람이 일치를 본 것은 킹제임스성경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설교자들의 회중들은 그저 그들의 “위대한 지성”에 감탄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4) 제일 좋은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알 필요조차 없

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가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헬라어 자료들이 넘쳐납니다(“설교 경연대회”에서 14살짜리 소년 하나가 헬라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친구는 헬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헬라어 도우미”를 통해서 자기 이익에 맞도록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규칙을 배웠을 뿐입니다).

헬라어를 배우는 데 설교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희생하면서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 좋지 않은 사실은 그 헬라어 학문의 세계에 빠져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경공부보다는 헬라어를 들먹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진정한 성경공부에 대해서 초보자라면 성경을 배우고 싶을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단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므로 그 문을 걸어 잠그면 헬라어를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그 어떠한 것을 많이 공부할 지라도 접근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설교자의 삶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빛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위선자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셔야 될까요? 차라리 그는 헬라어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도 필요 없이 그 헬라어로부터 무언가

“금덩어리”라도 캐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구사전(concordance)은 성경을 공부할 때 유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자 성경도 있고 컴퓨터 성경프로그램도 있어서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이나 특정한 단어를 찾을 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언급하고 있는 주석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지도 또한 도움이 됩니다. Halley's 성경 핸드북은 상당히 많은 정보의 보고이며 라킨의 세대적 진리는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진지한 설교자라면 컴퓨터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골프게임 실력을 늘리는데 방해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의 양들은 잘 성장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점검해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목사들의 견해보다는 성경 자체에 근거해서 영적 성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리스트에 맞추어서 수년간 당신을 점검해 보면 당신의 영적 성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Check List#1) 로마서 5:3-5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 세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4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환란(Tribulation)

(2) 인내(Patience)

(3) 체험(Experience)

(4) 소망(Hope)

(1) 환란(Tribulation): 이 과정은 우리가 아주 쉽게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보다도 자신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겁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즉시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환란이 닥치면 그저 공포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런 재앙이나 큰 문제들에 대해서 압력을 받아 보았다든가 슬픔을 겪어본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숨어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젊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성경 안으로 도망가서 숨는다면, 그리고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는 충동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멈추면 한 걸음씩 인내를 배우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 인내(Patience): 환란은 공포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인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가 구원받은 후 1년쯤 되었을 때에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매우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이 그가 8~9년 성장한 후에 벌어진다면 과거보다는 훨씬 덜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겪었던 환란이 그에게 인

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3) 체험(Experience):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감에 따라 새롭게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제에 흥분하거나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미성숙함과 연관이 있는 감정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4) 소망(Hope): 20~30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20년 전에는 절대 넘을 수 없었던 엄청난 일에도 쉽게 대처합니다. 웬만한 일들에는 공포가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서 여유 있는 미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일 이전에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온갖 종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즉시 자동적으로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첫 번째 환란을 통해 이 소망을 지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수년 동안 동행해야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차분하게 문제에 대처하려면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초기 몇 년 동안 겪었던 환란 때문에 교회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당신은 영적 전투에 완전히 패배한 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Check List#2) 베드로후서 1:5-8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젊은 그리스도인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아주 놀랍게 보여 줍니다.

(1) 믿음(Faith):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생명의 첫 출발이고, 당신이 거듭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갓난아이의 출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성장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2) 덕(Virtue):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결(chastity), 예의 바름(chivalry), 선함(goodness), 도덕(morality), 성적인 순결(virginity), 영예(honor), 고결(integrity), 순수(purity) 그리고 거룩함(sanctity).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빌 클린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 세상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도 주목하십시오. 요즘 말하는 고등 교육이 많은 방식으로 묘사되지만, 그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살다가 구원 받은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언급된 속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

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덕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약하게 되어서 모든 삶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단에서 도덕적 순결을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을 보게 됩니다. 도덕과는 무관한 삶을 산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구령만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순결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순결한 삶을 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덕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획득할 수 없는 능력이 순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혹은 신적인 존재 안에 있는 권능이나 영향력”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효능(virtue)이 주님으로부터 빠져 나간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정역은 효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And Jesus said, Somebody hath touched me : for I perceive that virtue is gone out of me.)”(눅 8:46).

우리 역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능력은 덕을 통해서만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지 못한 우리의 삶을 정화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나약함에 의해서 당혹스럽게 될 것이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도움 주는 책으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순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

나라,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비롯듯이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롯다가 걸려 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 지식(Knowledge): 당연히 지금 말하고 있는 지식은 세상적 지식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적분에 관한 지식 혹은 자동차 수리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책을 읽을 때면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책의 저자를 읽는 것입니다.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나와 처음 만나던 그 순간에 이미 여러 번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법궤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킹제임스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킹제임스성경 그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킹제임스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분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어느 날 밤에 당신의 침대 앞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쩍 번쩍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책의 말씀과 가르침에 밀착시켜 묶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구령, 구령, 구령만을 외치는 메시지만 매주 들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수상 스키나 타면 성경은 배우지 못합니다.

(4) 절제(Temperance):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균형(balance)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균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균형이 아니고 절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극단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배불리 먹어 비만이 되든지, 굶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때 절제가 필요합니다. 꿀은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시 119:103).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꿀은 좋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몽땅 원한다는 것입니다. 꿀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가능한 한 많은 꿀을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꿀은 피를 정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마다 꿀로만 식단을 차리려고 합니다. 건강에는 유일하게 꿀만 먹으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5:16에 보니까 꿀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고 써 있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식단에서 꿀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꿀이 위험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꿀을 통제해야 할 물질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습니까? 둘 다 극단적이므로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꿀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병들게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꿀을 완전히 제거해서도 안 되고 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꿀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자기가 듣는 것에 따라 지나치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급히 마차에 뛰어 오르지도 말라고 하고, 너무도 신속하게 마차에서 뛰어 내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달갑지 않는 사실(물론 죄는 아님)을 들었을 때 그 사람과 당장 교제를 끊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끊지 않는 사람들과는 즉시 분리를 해야 합니까?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행동함으로써 겪게 될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절제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좋은 시절에 있든지, 나쁜 시절에 있든간에 그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감정적으로 너무 축 처지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지나친 즐거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듯 절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제는 신앙생활

을 시작한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얻을 수 있는 영적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간을 온통 구령에만 다 빼앗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절제도 얻을 수 있습니다.

(5) 인내(Patience): 인내야말로 로마서 5장과 베드로후서 1장, 두 곳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굉장히 얻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인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인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포함되어야만 할 필수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렇고 그런 문제야”라고 서둘러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6) 경건(Godliness):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같음(God-likeness)”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다섯 가지 속성이 있는데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이 속성이 다른 이교도의 신들과 하나님을 구분해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속성들이 요나서 4:2에 잘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껴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 두셨을 때 요나가 화가 치솟아서 마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슨 단점이라도 되듯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욥 4:2)

만일 어린 아이에게 부족한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매우 친절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이것들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속성들이 당신의 성품 속에 부족하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a. 긍휼(Merciful):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나쁜 것을 안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옥으로 갔다면 그러면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교통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당신이 그 증거를 완전히 확보했는데 당신이 보기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벌을 거두어버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고

통스럽게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b. 은혜로운(Gracious):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장사지내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분을 당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지금 당장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 준 적이 있으신지요?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았다면 당신은 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c. 더디 화냄(Slow to Anger): 당신은 아주 급한 성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그런 성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성격상의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d. 매우 친절하심(Great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의 삶에 있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그러한 작은 일들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동방식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보여주시는 작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의 징표” 정도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친절로 인해서 당신이 얼굴에 미소를 띠다든가 아니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누군가에게 친절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e. 악으로부터 돌이킴(Repent of the Evil):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될 그 어떤 행동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후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것은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당신이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을 먹었다가 그만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으로 달려가서 당신의 그 잔인함을 정당화하는 성경구절을 찾지는 않았는지요?

이상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요나서 4:2에 나오고, 느헤미야 9:17에 나오고, 요엘서 2:13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성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이교도들과 구분지어 줍니다. 모든 이교도의 신들은 화를 잘 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화를 내시고, 매우 친절하시며 악으로부터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경우 악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시기로 했다가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게 나쁜 일, 즉 우리를 징벌하시기로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셨다가 돌이키심 같은 것입니다.-역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우리와는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 신들의 스타일로 삽니까? 당신의 하나님 스타일로 삽니까?

(7) 형제의 친절(Brotherly kindness): 형제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을 때 단지 형제라는 이유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는(혈육인 형제인 경우) 자기 형제나 자매의 나약함이나 약점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사랑합니다. 외부인들은 어떤 사람이 멋지고 합당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친절을 베풁니다. 그런데 형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로 그들은 내버렸을 때에도 자기 형제에게 친절합니다. (죄를 용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의 친절이라는 이 속성이 경건이라는 속성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 공동회의로 모일 때 이 형제의 친절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게 됩니다. 혹시 당신은 형제의 친절이 없다고 비난 받아본 적은 없지요?

(8) 사랑(Charity): 사랑(Charity)이라는 이 단어는 현대성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을 만큼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시키는 가장 표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love”라는 단어로 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love”는 진정한

사랑(Charity)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노아 웹스터 1828년의 사전에 보면 “charity” 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애정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 누군가를 향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갈망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알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을 당신이 사랑(“love”)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런데 사랑(Charity)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쯤 되면 가슴을 펴고서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앞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영적 성장의 표식이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선보다는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 말씀이 끝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로마서 5:5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반면에 베드로후서 1:8-11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내다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더 나아가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들을 우리 자신의 존재 안으로 우리가 잘 다져 넣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영적 성장을 측량할 수 있는 또 다른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 두 개의 리스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폭넓게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TV를 끄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3단계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앞선 단계보다는 한 단계씩 더 높이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1. 갓난아이(Baby) -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1-2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육신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육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갓난아이들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갓난아기에게 무엇을 먹이지요? 젖(우유)입니다. 그러니까 영양 형태로 볼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영양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갓난아기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젖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갓난아기에게 햄버거 한 조각 주어 보세요, 당장 질식하여 죽어버릴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젖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는 갓난아기입니다. 이 첫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 회심한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옛 삶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장발이고, 여전히 담배도 피우고 그의 언어 스타일이 여전히 거칠어서 예배드릴 때 그 사람에게 대표기도를 맡기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입니다. 그는 육신적입니다. 그는 그의 육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의 젖이 필요합니다(벧전 2:2).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경 교리들입니다. 이 갓난아기는 자기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십일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들어야 하고, 이 세상이 이제껏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과 거듭난 그는 다행

이 그것을 비껴갈 것이라는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써 영적으로 스스로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음식이지요, 그것은 젓입니다. 좀 더 딱딱한 것은 아직은 다루기 어렵지요. 고기는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젓은 그가 그 다음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의 성장을 유지 시켜 줄 것입니다.

2. 10대(Teenager): 그 다음 단계는 10대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시리얼 말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10대들은 아주 대범하고,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뻔뻔합니다. 10대들은 때로는 불쾌한 행동도 하고, 그리고 그런 스타일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기를 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향하여 계속 무언가를 더 알아내려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5:12-14에 보면 영적으로 1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고다. 젓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이제 10대에 도달하면 말씀의 젓은 넘어서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교리도 이해해야 하고 왜 존 칼빈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대에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잠깐 제쳐 놓았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잠깐 옆으로 놓여진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성경에 대해 비평가들과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하고, 적어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단순한 젓 이상의 것을 갖도록 해 줍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들의 영적인 성장은 뒤쳐질 것입니다. 목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이 구령, 구령, 구령이라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세상과 맞설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넘어서 더 높은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3. 하나님의 사람(The Man of God): 모든 소년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10대들은 자기가 다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젓을 먹고 나면 고기를 먹어야 하고,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 번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신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히 13:9)

“은혜!” 우리는 요나서4:2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섯 가지 속성 중에 은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이 은혜가 너무도

부족함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10대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들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물론 그들은 우유를 떠냈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은혜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거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스스로 옳다고 너무도 확신한 나머지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망가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고기와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젊은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가 요한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려 했으나 바울은 그것을 꺼려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떠나버리고 도망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너무도 단호해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구원받은 지 약 18년쯤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10대였지요. 아주 단호한 마음과 싸우려고 하는 투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 약 14년이 지나서 그는 디모데에게 마가는 나의 사역에 있어서 유익한 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딤후 4:11).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마가 요한도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성장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고기를 먹는 수준에서 은혜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마가의 옛 나약함을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장해 감에 따라 점점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10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당신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셨겠지요.) 이제 충분히 세월이 흘러서 당신이 과거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했던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당신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식보다 열심을 보일 경우 그런 사람들을 즉시로 판단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조금 여유를 갖고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당신은 당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필요를 느끼지 않은 채로 그 사람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어찌면 그 사람의 견해가 옳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내가 내 의견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은밀한 죄를 지었다가 들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면 이것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회개했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의 회개는 훨씬 더 신뢰할 만했겠지요.

저는 언젠가 한 설교자가 부도덕한 죄에 연루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음까지는 아니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유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켰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동료 설교자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끊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테이프로 만들어서 동료들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통하여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똑같은 스타일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그가 용서 받아야 됩니까? 예, 물론이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이 진지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되어서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회개 하려고 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를 쫓아냈을 때 그는 저 아래쪽 동네로 가서 자신을 따르는 멍청한 자들과 함께 교회를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도덕한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파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빚을 청산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이상 당신에게 신용 대출을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처럼 똑같이 자신을 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은 결혼 생활을 유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당신이 파산한 이후 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할지라도, 아마 당분간은 당신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 후에 다시는 파산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계속해서 몇 년간 제 때에 청구서를 다 갚고 그리고 한번도 빚 갚는 것을 어기지 아니하면, 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이제는 괜찮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부도덕한 죄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신용도를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그 사람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친척이 백마를 타고 와서 “우리가 더욱 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받았던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인척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그런 짓을 했더라면 아마 그 사람도 피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리석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죄를 용납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요한계시록 4:11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창조주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은 구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제5장 거룩함과 분리

모든 것에는 양 극단이 있습니다. 정당도 자유당과 보수당이 있고, 생활 방식에도 히피와 아미쉬(검소한 생활과 구습을 지키는 기독교의 한 종파-역주)가 있습니다. 모든 입장에는 그것과 반대가 되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이 세상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같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입장일까요?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찾기가 쉽고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1:4에 따르면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출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7:11-17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15-17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육체에 의해서 더럽혀진 옷조차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극단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 악한 현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는 뻔뻔스럽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친구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1. 세상은 부도덕입니다

도덕에 관한 한 세상과 성경이 정반대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 모두를 엄격하게 정죄합니다. 세상은 이런 죄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욱 조장합니다. 학교에서, 대학 강단에서, 책에서, 영화에서, 심지어는 신문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창조주에게 반역하는 데는 아주 무모하고 대담해서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을 아주 영웅처럼 드높입니다. 예를 들면 휴 헤프너(Hugh Hefner), 밥 구지온(Bob guzzione), 레리 플린트(Larry Flynt), 하워드 스텐(Howard Stern)같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 뉴스 미디어의 울타리에서 의로운 영웅들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철책을 쳐서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대중 매체가 이 부도덕한 자들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사 잡지, TV프로그램들이 벌거벗은 것이나 부도덕한 것들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들이 마치 정상적이고, 선하고, 건강한 것처럼 대중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껏 나온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천박한 자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그가 백악관을 창녀촌으로 만들었을 때, 대중 매체들은 그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매장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 달라야만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주목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2. 세상은 잘못된 음악입니다

음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에 음악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음악은 인간의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 음악은 독특한 방식으로 계시록 4:11 말씀을 성취하도록 인간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지자 음악도 그와 더불어 타락해 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혼을 위한 음악을 듣게 됩니다. 영의 음악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만, 혼의 음악은 죄인인 인간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음악은 관능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이제는 인간의 몸을 향해 자극을 줍니다. 이들의 음악은 가사나 멜로디에 깊이가 전혀 없으며, 그들의 춤과 노래에서 품위라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공격적인 언어와 혐오스런 모습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음악은 모두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이런 혐오스런 음악을 경배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는 자는 마귀 들린 자입니다. 이런 음악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단지 반 기독교적 생활방식의 표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오염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서양음악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흐를 기점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이었으므로 고전파 음악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 베토벤 음악부터 낭

만파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영이 아닌 혼을 자극하고 감정을 고무시켜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음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현대음악의 대가라는 바그너와 차이콥스키를 기점으로 인간의 육체를 자극하여 관능적이고 저질적인 음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한 음악은 락앤롤의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흘러가 완전히 인간은 음악을 통하여 사탄을 찬양하는 마귀의 노예로 켜지는 목소리와 고함과 몸을 비틀며 육체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을 통하여 타락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음악뿐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도 “댄스 뮤직”이라 하여 몸을 비틀어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못하면 음악성이 없다느니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트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타락의 극치이며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탄 숭배에 빠져 들게 되는 것입니다.-역주)

3. 세상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은 세상 음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젊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만듭니다. 마치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한 것처럼 진화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현대교육 현장에서 “가치를 투명하게 하자”(Values clarification)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순진한 어린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도덕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학교 수업시간에 언급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 기독

교는 아예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육 시스템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교육의 이런 악 영향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4. 세상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세상은 헛되고 하찮은 것들을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농구에서 슛을 잘하고 야구에서 홈런을 치고 미식축구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로 드높임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재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이 더 높임을 받습니다. 가난하고 영향력 없는 설교자가 유명한 농구선수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지라도, 대중은 설교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직업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우리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스타일과 패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에너지와 재원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패션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스웨터를 입은 모델이 걷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발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과 발 맞추어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최신 유행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에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패션에 발 맞추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또 다른 잘못된 목표는 환경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운동의 목표가 지구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환경론자들은 흙과 감정적 교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흙의 안전을 걱정하느라 정작 본인 인생에서 뺏아야 하는 관계에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환경론자들의 몇 가지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생명이 없는 실체 즉 지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물론 지구는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그 지구 자체가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흙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협심을 느끼고 의롭게 생각하며 자기 의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흙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흙이 어떤 사람을 거부한 적은 없기 때문이지요. 환경론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흙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 땅과 그들을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께는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환경운동은 이보다 더 악합니다. 미국의 환경운동의 확고한 목표는 미국 경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환경론자들은 세계가 하나의 정부 아래 연합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미국의 존재는 그들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 3세계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환경론자들의 목표는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환경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1991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셀 수도 없는 양의 원유를 걸프만 해역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정들을 불로 다 태워 버렸습니다. 엑손 이라는 석유회사의 발데스 호가 바다에서 일으킨 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원유로 페르시아 만을 오염시켰던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스캔들 기간에 입 다물었던 자유주의 성격의 N.O.W.라는 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들 환경론자들도 똑같이 사담 후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자연을 파괴한 것에 대해 후세인을 비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실제 환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에 재정적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혐오스럽고 부정직한 이 세상의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아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환경운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술주정뱅이에 관한 재미있는 농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버렸고, 자식들도 그를 부끄러워하고, 직업도 없고, 건강도 엉망이고, 시궁창 같은 곳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풀이 죽기는커녕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나쁜 예로 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항상 나쁜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되고 확실치 않을 경우,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과 정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호도된 이 세상의 목표가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 교회들에게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령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 문화의 도덕 수준이 공공 교육과 예능 산업에 의해서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세

상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대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교회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운동을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앞세웁니다. 또는 일요일 오전에 패션쇼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빛나간 사상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창조주께 기쁨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설교를 통해 들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어떤 그룹들은 이와 같은 성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6:17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분리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는 머리가 얼마만큼 길러야 하는지, 여자들의 머리는 얼마만큼 길러야 되는지, 남자나 여자에게 각각 알맞은 옷은 어떤 옷인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식료품은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포함해서 다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한 십대가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무려 두 페이지가 넘는 규율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회보다 이런 율법주의가 혹시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주의자들은 잘못된 것일까요? 굳이 말씀 들이자면, 그들은 올바른 교회 안에 있기는 하나 그들 자신은 잘못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리주의자들은 세상에서 부패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제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악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세상이 침투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항상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뒤쫓아와서 그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체크리스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리주의자를 만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당신을 점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분리주의자들은 당신을 만나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화 보러 갑니까? 당신은 남녀가 함께 어울려 온천욕을 해도 된다고 믿습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과 단 한 가지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두 가지 면에서 그들과 견해가 다르다면 더 많은 교제를 위해 당장 바깥으로 나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나 많은 면에서 그들과 견해가 달라진다면 당신은 아마 정죄를 받고, 다음 주 설교 예화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제 막 교회를 담임하게 된 한 설교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마을에 온지 일주일도 채 안돼서 교회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 건 사람이 아주 정중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있는 다른 독립침례교회의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전화 드

린 것은 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 교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언젠가 한번 시간되면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싶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답변도 채 꺼내기 전에 그 전화 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그 젊은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약 45분 후에 그 전화 건 사람이 아주 소리를 질러 댔다고 합니다. 그 젊은 목사한테 당신은 이단이고,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젊은 목사에 대해 설교하겠노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시133:1.).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좋은 것이지요, 때로는 잘못된 이유로, 때로는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분리를 하더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제도로부터 단지 분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롬 1:7, 고전 1:2). 성도란 단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상입니다. 즉 성도란 기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쾌해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하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하지 않겠지요,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경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배하는 데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의견이나 편견은 일단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령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들고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 “아니 구령 말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분들은 조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자신의 책에 써 놓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대상 16:29)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시 29:2)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이다.”(시 96:9)

자, 이 구절들을 읽고 뭔가 번쩍하면서 빛이 임하는 것 같습니까? 당신의 창조주에게 당신의 삶이 기쁨이 되는데 뭔가 더 더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계시록 4:11에 나와 있는 당신의 의무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못 찾으셨다면 지금부터 살펴 볼 말씀들이 당신의 그 영적인 스위치를 딱 올려 줄지 한번 살펴봅시다.

1.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

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롬 12:1)

2.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런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7)

3. 우리 각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 1:4)

4. 우리의 여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고전 7:34)

5. 목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딤후 1:8)

6. 개인의 거룩함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룰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2-15)

7.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골 1:21, 22)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체크리스트 없이도, 분리의 문제를 잘 다룬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하면 안됩니다.”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에 술을 집어넣는다면 내 몸이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내 몸이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더러운 것들을 보고, 읽고, 듣는다면 내 몸이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무엇 무엇을 한다면 내 몸이 거룩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에 계속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당신이 그 누군가의 리스트를 따르는 것보다 사악하고 더러운 행위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개개인의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회는 각 성도들의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3. 우리 각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본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의 혼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수군수군 하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설교자를 망치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자신의 혼을 돌아보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설교보다 교회에 훨씬 더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4. 우리의 여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특별한 존재

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놀라운 존재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있어서도 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내 몸과 영이 거룩할 수 있을까?”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내 몸과 영이 거룩할 수 있을까?” (여자들의 적합한 옷차림에 대해서 교회 안에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연구도 해 봤는데, 나는 그와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Test)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두 그리스도인이 여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서로 논쟁할 때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의 논쟁 중에 어느 쪽 편을 들 것인가를 잘 보십시오. 새로운 성경 버전의 이슈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남자처럼 행동하면서 내 몸과 영이 거룩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갈망이 없이 내 몸과 영이 거룩할 수 있을까?”

율법주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여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고상한 보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와 같은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5. 목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스스로 이와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관능적인 태도로 여자와 접촉하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동료 사역자를 망쳐버리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음란 웹 사이트에 방문하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6. 개인의 거룩함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미 살펴 본 것처럼 로마서나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영적 성장의 척도와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긍휼과, 친절과, 생각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태도와, 인내와, 용서하는 태도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이와 같은 영적인 속성들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의 삶에서 이와 같은 좋은 성품들이 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단지 구령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7.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원

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창조주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기다리십시오. 구약성경을 보니 한때 좋은 왕이었다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주님을 많이 실망시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다가 나약함이나 감정적 기복 때문에 순수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나약함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선 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1) 인내(Patience)
- (2) 경험(Experience)
- (3) 소망(Hope)
- (4) 믿음(Faith)
- (5) 덕(Virtue)
- (6) 지식(Knowledge)
- (7) 절제(Temperance)
- (8) 경건(Godliness)
- (9) 형제의 친절(Brotherly kindness)
- (10) 사랑(Charity)

- (11) 긍휼(Mercies)
- (12) 친절(Kindness)
- (13) 마음의 겸손(Humbleness of mind)
- (14) 온유(Meekness)
- (15) 오래 참는 태도(A longsuffering attitude)
- (16) 견딤(Forbearance)
- (17) 용서(A forgiving attitude)

(여기 나와 있는 17가지는 앞서 로마서 5장, 베드로후서 1장,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성품들을 요약해 본 것인데 겹친 것은 제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리스트로 끝나기는 끝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더하여 져야 될 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격에 이와 같은 속성들이 내재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리스트를 달성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분리주의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된 삶이 개인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폭 잠기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거룩한 삶으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단지 부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형성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主)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인격으로 변화 되는 것입니다.

제6장 그리스도인의 갈망 vs. 형식적인 신조들

어떤 사람이 C.H. 스펔전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재미있게 즐기면 안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때 스펔전 목사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단 한 줄 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이 거룩함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교회들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목록, 즉 율법주의에 관한 논쟁, 또 이와는 반대로 자유주의에 관한 논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또는 율법주의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큰 그룹으로 갈라집니다. 한 그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룹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목록으로 만들고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 옳은 태도입니까?

자유주의의 정의를 내리자면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조보다 한 가지라도 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행실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들의 기준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공평한 것도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는 삶의 모든 제약을 버리고, 육신의 안락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니다. 대다수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성경적 근거를 요구하며 육신적으로 생활하는 자신들의 나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이렇게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금지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마음껏 즐길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성경에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권련이나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회색지대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육신적인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지 않는다 해도, 통제 받지 않는 그들의 생활은 결국은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이 모두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별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유”를 만끽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느슨한 삶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그들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배교하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조보다 한가지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율법주의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공개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을 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경적 의미로 율법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기준에 따라 율법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오늘날 율법주의자라고 딱지가 붙여진 사람들은 대개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생활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 자신들이 만든 “기준들”, “신조들”, “선호들”로 그 빈 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거룩함”에 관한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충실하게 지키라는 요구가 지나치게 강하게 되고 그 결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동기는 옳바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방법은 억압적인 방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목록들을 “신조들”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또 이를 자신들의 헌신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스커트 길이부터 시작해서 저녁식사 장소까지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려고 하는지조차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적 확신이 무엇인지는 본인의 책 “대표 설교집” 1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가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똑같은 축소판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허락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묘사하신 이 현 세상과는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정신은 율법주의자들이 목표 삼고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 역시 육신의 쾌락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에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빛나간 그리스도인들을 즉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친절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목록은 두려움이 동기가 됩니다.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동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별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가 필요할까요?

사도바울은 성경에서 참으로 소름끼치는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고전 16:22).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적이 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심을 바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누구를 사랑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수업에서 빨강머리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녀가 자기를 미워할 때조차도 그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년은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누가 당신에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 전에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6학년 수학수업에서 만난 다른 소녀들의 집을 모두 불태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녀들을 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 (1)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 (2)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 (3)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 (4)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 (5)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 (6)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비방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 (7)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어떤 행동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편견입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편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감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준다면 이것은 더욱 놀라운 행복입니다.

이제 사랑을 정의 내린 7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에 위 사항들이 반영되어있습니까?

- (1) 당신의 생각 속에 항상 주님이 계십니까?
- (2) 당신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 (3) 당신은 주님께서 행복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 (4) 당신은 주님께서 행복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까?
- (5) 당신은 주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심지어 당신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더라도 당신 안에 불평이나 쓴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 (6) 주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당신은 절대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십니까?
- (7)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의 어떤 행동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니까?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연애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의 머리가 멋지게 보이도록

손질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당신을 좋아하도록 하고 싶어서 가장 멋진 옷을 골라 입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은 평소와는 달리 조금 불편하거나 잘 하지 않던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은 그를 위해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멋진 옷을 입는다면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럴 리가 없지요.

물론 교회는 패션쇼를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이려는 마음을 품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연애할 때 자신의 미래의 배우자에게 가장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도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가치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동기(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갈망)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합니다. 아내 될 사람과 연애를 할 때에는 당신이 사용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불쾌해하실 지도 모르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검토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은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무엇이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몇 가지를 제거하는 것 이상입니다. 즉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더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에 대해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TV를 끄면서 “오늘밤은 성경을 꼭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고 그곳에 당신이 함께 하기 위해 일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침대에서 끌어내려서 교회에 간다면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요? 당신의 옷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실 만한 옷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신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자신보다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할 갈망으로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7:41-47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빛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빛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

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저는 우리가 너무도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사악함에 대해서는 소경처럼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을 정말 사악한 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레미야 17:9에 나와 있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자기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 수십 명쯤은 금방 잘 찾아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께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만큼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게 용서 받았으니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꿔야 할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예레미야 17:9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 이 말씀은 찰스 맨슨(Charles Manson)이나 티모시 맥베이(Timothy McVey) 같은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토록 사악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이 벌써 얼마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신실하지 못한, 완전히 순수하지는 않은 그런 행동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당신이 싫어하거나 당신이 화가 나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교묘하게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당신 스스로의 주장을 슬쩍 내 놓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그런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죽음에 가까이가 본적이 있습니까? 거의 익사할 직전까지 가 보았다거나, 불타오르는 빌딩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극한 공포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극도(desperation)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만큼 사악한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사악한 일을 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그 사악함에 대한 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더 나아가서 로마서 5:8-9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

원을 받으리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죄들과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죄들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친구들 몇 사람하고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당신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늘어났겠지요. 그러나 당신이 자랑스럽게 당신의 죄를 늘어놓는 그 순간마저도 함께 앉은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어떤 죄가 당신 속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당신에 대해서 당신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만약에 당신의 친구들이 알아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그 수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그 실상을 알고 있는 존재는 오직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당신의 사악함을 인해서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겿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쩌면 주님은 당신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사악하다고 생각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자녀들이, 혹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은밀한 죄들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아마 당신과는 더 이상 교제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과격하게 대적하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너무나 사악한 모습에 비하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상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때가 있지 않

있습니까? 당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많이 용서 받은 사람입니까? 적게 용서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이제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까? 적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구원 받은 후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원자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았으나 하늘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하늘이 어떤 곳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적게 치른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대가를 많이 치른 것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부여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그 가치를 적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우리가 죽기까지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뭔가 크게 빛진 느낌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을 때 당신이 있었던 그 위치에서 당신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버려두셨더라면, 당신은 어쩌면 그 경험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로 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또는 부부관계의 문제 또는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즉시 다음 구절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후 5:17)

만약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벌써 이혼해 버렸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지금 감옥에 가 있을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단지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피한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심사숙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살펴보고 혹시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과 비교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1. 구원(Salvation)

당연히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이요, 그 대가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21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이 세상에서 살았

던 인간들 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낮추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은 일이었던 것처럼,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도 우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과 같이 당신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2. 건전함(Sanity)

구원받기 전에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때문에 자신의 인격이 파탄 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신 질환을 치료하고자 충격 요법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심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3. 결혼(Marriage)

셀 수 없이 많은 부부들이 파경 직전에 도움을 받고자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이전에 받았던 결혼상담도 실패했고,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충고도 그 파탄 지경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지요, 모든 것이 희망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어떤 사람은 어쩌면 그들이 잃어버릴 운명에 처해 있던 그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분의 공홀에 대해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구원 받기 전 엉망진창으로 산 삶 때문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함께 결혼 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4. 돈(Money)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에는 게으름뱅이에다 나태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이라고 해 보아야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입에 풀칠이나 하고 먹고 살아보려고 어슬렁대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모험을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결국은 하는 일마다 다 실패로 끝나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때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롭게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5. 우정(Friendship)

아무런 친구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

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요구나 하고, 잔인하고, 사교성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자마자 성경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이제는 수십 명의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가족(Family)

어떤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들을 한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들의 처방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는 가족,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구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7. 미래(A future)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일생을 보낼 운명에 처했거나, 아니면 높은 다리의 난간에 올라가서 “먹고 살게 일 좀 시켜 달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오늘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셔서 교회 회원으로 삼으시고, 집사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때로는 설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은혜로운 구원자이시며 놀라우신 주님의 그 경이로움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결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꿈꾸었던 그 미래를 지금 현재 당신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론

저는 지금까지 구원에 동반되는 수많은 축복들 중에 단지 몇 가지밖에
는 예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펜을 하나 들고 앉아서 당신이 구원받
은 이후 은혜로우신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축복의 목록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어쩌면 이와 같이 그분의 축
복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일깨워주어서 그분
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만한 그 사랑을 당신 안에서 다시 불러일으킬 계
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경건의 기준에 부
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리스트가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거룩함과 거리가 먼 것들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당신
의 삶에서 제거할 것이고, 당신에게는 낯설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어
울릴 것 같은 일들을 당신의 삶에 더할 것입니다. 공허이 넘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형식적인 “신조들”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제7장 성경 지식과 성경의 무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 손에 짚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선언은 인간의 통제하기 힘든 속마음과 과도한 권력을 지닌 인간이 겪는 중독효과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선언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만큼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부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당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엄청난 권력에도 불구하고 포악하지 않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지 않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악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비열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더 좋아하시니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분의 피조물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분의 피조물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분과 더 가까이 관계를 갖고자 갈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경

우는 어떠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마치 처녀를 화산에 던지는 것과 같이 생소하십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탐구마저도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책 한 권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바 지식의 원천은 오직 이 한 권의 거룩한 책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지침을 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갱단의 두목 정도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전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몇 사람을 더러운 부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거짓 속임수에 속았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책을 읽기만하면, 그 책의 저자이신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노력 이상입니다. 당신이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저자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밤 집회에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쓴 〈질문에 답하여〉라는 책을 세 번이나 읽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세 번이나 읽어서 그런지 당신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책을 쓴다면 당신은 단지 정보만 전달하는 그 이상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책의 본문에

당신의 성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의 책을 읽은 사람은 책 속의 정보뿐만 아니라 저의 성품을 추가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과학과 유머와 도덕,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본문 안에 자신의 성품을 붙여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흔적이라니요? 예, 물론 당신은 성구사전 혹은 컴퓨터 성경프로그램을 가지고 당신이 성경에서 흥미를 갖는 단어들을 다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관심 있는 어떤 분야도 당신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구사전 혹은 컴퓨터 성경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출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성경구절들을 발췌해서 만든 목록에도 하나님의 성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의 내릴 수도 있고 또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낯선 이방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붙들고 있는 개인의 의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알게 될 모든 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 해준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경을 주셨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성

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대언자 아모스는 우리에게 기근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암 8:11).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성경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대는 그 어느 때에도 성경을 얻기 어려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몇 년 전 중국 공산당이 자유 정신을 어떻게든지 억압해 보려고 잔인하게 정책을 폈지만, 그들은 세계 각처에서 흘러 들어오는 정보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이 간단히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중국 바깥으로 흘러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팩스나 이메일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어떤 강력한 권력이 등장해서 미국의 모든 집들을 방문한 후 성경을 모조리 다 압수해 갈지라도, 그 누군가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복사본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 성경 복사본은 킹제임스성경을 근간으로 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는 기근이 올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열변을 토하는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하

는 설교는 모두 복음 설교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설교의 핵심에는 복음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러나 단지 복음만 전해놓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전파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구령을 방해하는 종류의 책들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은 목록을 보았는데요, 그 목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원계획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성경공부도 다 구령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성경학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무지한 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서 여전히 자기 혼자만 성경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나중에 교회 독재자가 될 사람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일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경지식은 성경 자체를 직접 읽는 것에 게으르거나 정직하지 못한 설교자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그 설교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청중을 자신에게로 끌어 들이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책은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고급 음식점에 가본 일이 있을 터인데 그런 곳에서 잘 꾸며진 장식용 책장 선반에 멋지게 장식되어있는 고급 책들을 본 적이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식당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설교자들은 단지 자기의 서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근거해서 그럴듯한 책들을 사다가 꽂아놓습니다. 저는 책을 쓰는 저자인데요, 십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단 한 권도 어떤 게으른 설교자의 책장에 내 책이 장식품으로 놓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책을 쓰지는 않았습시다. 어떤 책을 쓴 저자에게 당신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 중의 하나는 “제가 당신의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이제껏 씌어진 그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진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쓰신 단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장에다 멋지게 한 권 더 꽂아놓으라고 그 책을 쓰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당신이 어리석지는 않겠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도록 의도하지 않는 책을 쓰셨다면 아마 역사상 가장 헛된 하나님의 노력의 낭비가 되겠지요. 어떤 신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심약한 추종자들에게 몇 개의 의미 없는 종교 의식을 제공한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책 한 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신들은 자신들에 관한 지식을 그 종교집단의 특정 계급에게만 제공한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을 읽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무슨 일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하시되 사람들이 읽으라는 의도가 없으셨다면 그분의 모든 노력이 헛된 셈이지요. 우리는 우리 창조주로부터 온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께 관심이 있고 그분을 사랑한

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을 읽으십시오

저는 어디를 가든 성경읽기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교자가 해야 하는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저는 제 책들이 놓여 있는 책장을 가리키면서 “내 책들은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읽지 않는 그 성경에 관하여 쓴 책은 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에 관한 책들을 모아서 읽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읽기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 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잠언이라는 책을 한 달에 한번씩 당신 안으로 통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성경을 최소한 10페이지를 읽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유효한 변명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0페이지는 너무 많다고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텔레비전에 의해서 하루의 삶을 인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불평입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영감을 주셨습니까?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책들도 읽으시지요? 그 책이 무슨 책이든지 간에 그 책은 영감 받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 안에도 영감 받은 단어들은 성경에서 인용한 성경구절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책들은

한 번 읽을 때마다 보통 50, 60, 70페이지까지 읽습니다. 여러분이 유명 작가의 책은 한번에 100페이지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책 10페이지는 너무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제시할 빈약한 변명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군요. 당신이 늘어놓는 변명을 들으면 아마 제가 천년 동안 킬킬대고 웃을 정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8:3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 4:4)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편 23편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설교만 추천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읽지 아니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따라서 성경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매일 10페이지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큰 나팔소리를 듣고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니겠지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신은 늘 생각이 똑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신은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를 제공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야 화가 나셨겠지만 나한테는 아니겠지, 아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존중해 주실 거야”. 이것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당신의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도 잘못을 하지 않으신 사실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다 믿으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한 종들이 죽도록 허락하셨을 때에도 그분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4:16-18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해 가셨을 때에도 그분은 절대적으로 옳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와 결혼하도록 강요하셨을 때에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게 하셨을 때에도 잘못하시지 않았습니까(사 20:2). 어쩌면 당신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사야가 진짜 벌거벗고 다녔을까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20:3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민수기 15:32-35을 보면 안식일 날 몇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주으러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잠깐 만요, 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몇 가지 일들 중에 당신을 불쾌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몇 가지 행동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심지어는 잔인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까?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못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면, 그래서 당신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시험이 들 정도라면 그 사실은 당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실수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들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로 든 하나님의 행동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책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책을 읽는다면 그분을 더욱 잘 알게 되어서 인간에게 동정심을 품는 것은 내려놓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의로우신 행위가 당신에게는 너무나 낯설어서 그것이 당신을 불쾌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쓰신 그 책에 당신 자신을 노출시키기 전에는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결코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주셔서 당신의 죄 값을 치르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 값을 치르는 일은 당신 스스로는 결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랫동안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페이지 자체에 기록된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우주를 엿새 동안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가볍고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자연과 서로 맞물리는 시스템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분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분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디자인하신 그분은 깊은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의 깊이가 성경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종이 위에 씌어진 단순한 단어들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 계획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째서 아버지의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지요?

신학교의 대부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도 헬라어 공부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신학교 교수가 “나는 헬라어로 모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교만입니다. 그들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기들보다는 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 몇 마디를 발음하고 느끼는 지적인 우월감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자기가 속해 있는 회중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언가 더 배워 보려고 하는 열망을 지

닌 사람이 되겠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전혀 오류가 없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경교리입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에 뒤이어 물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 지역 교회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여러 증거들, 그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교들은 이 정도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들이 알아야 할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직후 신학교에 다녔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에 대해서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었지요(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 교사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전혀 오류가 없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고, 그 오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내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간직한 채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마음 자세였습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그 사람이 어디가 틀렸는지 딱 찾아내서 그것을 고치면...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 누구도 자기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일을 그만 두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문맥 속에 의미심장한 것을 넣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진리들을 찾아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빛을 얻고 하나님께 위대한 찬사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성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어렵고, 새로운 교리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버지의 책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보다는 그분의 책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미식 축구선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뒤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에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미스터 죠, 당신이 아는 것이 뭐요?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즉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 (1) 요나가 고래뱃속에 있었을 때 그는 죽었는가?
- (2)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가?
- (3)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라는 용어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가?

- (4) 천년왕국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 (5) 이 지구의 등기권리 소유자는 누구인가?
- (6) 마태복음 24:27-31에 나오는 환란 중간의 휴거는 우리의 휴거인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휴거인가?
- (7) 도대체 누가 지성소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 (8) 레위기 27:22-23에 언급되어 있는 거룩한 것이란 무엇이며 도대체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그와 같은 지위를 성취하게 될 것인가?
- (9)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다섯 가지
왕관은 무엇인가?
- (10) 어느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고, 어느 천사가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
인가?

지금 방금 읽은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성경적으로 무지한 극단적 구령주의자는 이렇게 외치겠지요, “오 축복 받으소서, 하나님 이시여, 아니 지금 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들은 중요한 것입니까? 예, 물론이지요.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의 책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베일로 덮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더 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 숨겨놓은 신비들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시

간을 들여서 애를 쓰고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발전하도록 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이는 시간을 낭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한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않으신지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앞서가는데 성경적으로는 뒤쳐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중요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겁먹지 마십시오!

겁을 주는 것, 이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겁쟁이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사실과 애착이 사라져버릴 때 아주 엄포를 놓고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괴롭혀서 자기들의 뜻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은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격이 너무도 부족해서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당신의 무릎을 굽힐 정도라면, 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당신이 진짜 섬기는 당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 독재자 말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두려워하는 성경 지

식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서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게으름(Laziness): 어떤 설교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을 아무런 개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설교자 자신이 너무나 바빠서 성경에다가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의도가 없는 것뿐입니다. 이런 설교자는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을 억누르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편의(Convenience): 많은 설교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래로 성경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창회, 교단, 모교 일에는 바쁘고 모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이 만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 동기 목사들과 어울리는 데 실패하면 그들 동기생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교제를 거부당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성경진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드러내 놓음(Exposure): 아주 교활한 사람이 사역하는 것은 드물지만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설교는 일종의 노동입니다. 이런 목사는 권력과 수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괴롭힙니다. 소위 이들 즉,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 들은 자신들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주하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사실 성경은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지미 존스(Jimmy Jones)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었지요.

4.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다(Too much to Lose): 어떤 설교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뭔가 숨겨 놓은 죄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다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1)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고 있는 분명한 성경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성경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무지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쉬운 길이 됩니다.

5. 잘못 인도됨(Misguided): 어떤 설교자들은 신학교 때 배운 것 이상으로는 성경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령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구원 계획과 몇몇 교훈적인 본문 몇 개를 담고 있는 정도로 성경을 대합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순진합니다. 그들의 선생보다 더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생이 가르쳐준 것 이외에 더 배울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

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통제하고 있는 설교자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든 관계없이 성경을 인용해서 목사를 슬프게 하지 말라, 목사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목사 뒤에서 일을 꾸미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영적인 범죄행위이고 당신은 불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때로는 그들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신 그러한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슬픔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성경적으로 무지해야 할 정도로 그 누구에게도 빛을 진 것은 없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몇 번에 걸친 위대한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오늘날처럼 확고하게 세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1700년대에 있었던 대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 각성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교파 안에서 여러 각성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람 대신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종교 개혁을 촉발시켰고, 회중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모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위대한

세력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들이 성경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이들 거대 교파들은 성경으로부터 떠나갔고 성경보다 덜 중요한 분야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현재 이미 문 닫은 옛 회중 교회들과 감리교회들만 간혹 보입니다. 당시의 많은 하얀 판자로 세워졌던 커다란 교회들이 지금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유는 목사들이나 회중들이 모두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남 침례교도들마저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 한때 거대했던 교파들은 지금 현재는 그들 회중들을 확고부동하게 세울 수가 없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여성에게 안수를 주며 발버둥치지만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믿는 교회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빌딩을 사거나 또는 지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빌딩들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극단적 구령주의 철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 킹제임스성경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은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목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오직 “성경, 성경, 성경”을 권합니다. 이들 목사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 목사들은 구령뿐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성경의 모든 진리로 성도들을 세우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분시켜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한때 거대했던 교파들의 썩어가는 시체들로부터 우리를 구분시켜주는 것 역시 성경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책을 버리고 다른 무엇을 더 좋아하게 되면 곧 우리는 우리 교회가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에 물들고 형식주의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성도만이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그분의 궁극적인 즐거움

불행하게도 할리우드와 할리우드로부터 흘러나오는 찌꺼기 같은 잘못된 문화적인 흐름 때문에 “쾌락” 또는 “궁극적 쾌락”이라는 이 단어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이상하고 변질된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깊은 구렁텅이에 폭 빠져들어서 맥주 깡통 위에 올라서서 입을 크게 벌려 외쳐대는 그 멍청한 사람의 외침이 궁극적인 기쁨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여!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하며 맥주를 들이켜는 것이 즐거운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너무나 낮춰서 야릇한 미소나 윈크 같은 것이 없이는 쾌락 또는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신이 이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을 모든 미국인들의(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마음 속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는 드디어 계시록 4:11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의 창조주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영적 출생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이 끝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인생을 살아 가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들을 얻어 점점 자신의 창조주에게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주님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간섭을 다 차단하고 자신의 음악, 옷차림, 친구들, 생활방식을 하나님께서 과연 승인해 주실지를 하나님께 질문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적인 리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당화 하려고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오염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버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수 없다면 그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면 당신에게는 참으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더해져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 교회를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의 매일 먹는 음식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성경을 읽는 것도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자신의 새로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바를 보여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 가지 한 가지 변화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날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가 창조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창조주의 얼굴에 매일 같이 미소를 띠도록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단지 구령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창조

주께 규칙적으로 기쁨을 드리는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하여 아주 궁극적인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의 원천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즐거움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바로 그 본질이 무엇 인지를 정의 내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는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약 1:13-14). 그러나 성경은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느도다.”(시 11:4)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망대와 요새로 세웠으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하게 하려 함이라.”(렘 6:27)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렘 9:7)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렘 17:10)

“또 명철한 자들 중의 몇이 넘어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단 11:35)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숙 13:9)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0)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시 26:2)

“오 하나님이며,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시 139:23)

자 우리의 존재 이유 즉 우리의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 드리는 작은 희생들이 우리 하나님께 지속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보다도 더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제로 사랑하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신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딴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강제로 사랑하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해볼 방법이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실 필요가 없으실 정도의 그러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그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주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희생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겉으로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바람둥이 남자들이 젊고 순진한 여성들에게 다가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그 사랑한다는 의지를 내게 보여 주어야 해”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랑

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희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돈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사 주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의 사랑이 정말 깊은 사랑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아(self) 위에 희생을 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입증이었습니다(롬 5:8-9).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의문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진정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려면 우리가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코치를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 없이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진정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진지함을 시험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둘 사이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우리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시험에 통과한다면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최고의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불 같은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험은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너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향한 자신의 자녀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모든 자녀를 분명 다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들을 시험한 모든 기록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두 가지의 시험은 성경 본문이 그 사건들을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1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창 22:1)

(1) 시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2) 대답: 하나님

(3) 점수: 100점

(4) 결과: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셨다.

2. 히스기야: 바벨론의 관원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역대기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대하 32:31)

- (1) 시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 (2) 대답: 자기 자신(왕의 보물창고를 자랑하면서 모두 보여주었음)
- (3) 점수: 0점
- (4) 결과: 그의 손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됨(왕하20:17-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순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시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몇몇 인물들의 궁극적인 테스트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 (1) 시험: 아담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 (2) 대답: 자기 자신
- (3) 점수: 0점
- (4) 결과: 온 세상이 저주를 받고 사망이 인간을 통치하게 됨.

4. 야곱: 야곱의 시험은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있었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또 다른 시험은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대면할 때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그 시험에서 겨우 통과했습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 즉 레아와 그의 자녀들 뒤에 숨어서 그들이 죽도록 내 버려둘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 시험: 야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2) 대답: 하나님을 앞에 놓았습니다.

(3) 점수: 100점

(4) 결과: 그 시험에서 아무도 죽지 않음. 만약에 잘못 했더라면 야곱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다 죽을 수도 있었음.

5.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리바에서 두 번째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반석 앞으로 가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석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반석을 두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민 20:12).

(1) 시험: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2) 대답: 자기 자신

(3) 점수 : 0점

(4) 결과: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죽음.

6. 다윗: 다윗의 시험은 밋세바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욕신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역대기상 21:1에 보면 다윗은 아담처럼 마귀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도록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려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1) 시험: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 (2) 대답: 자기 자신
- (3) 점수: 0점
- (4) 결과: 3일만에 전염병으로 70,000명이 죽음.

7. 느헤미야: 느헤미야 6:10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들었을 때 자기 목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생명을 먼저 돌보지 않았으므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 (1) 시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 (2) 대답: 하나님
- (3) 점수: 100점
- (4) 결과: 그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됨.

8. 에스더: 에스더 4:14에 보면 에스더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자기는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섰습니다.

- (1) 시험: 에스더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 (2) 대답: 하나님
- (3) 점수: 100점
- (4)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될 운명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음.

9.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풀려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주님께서서는 결국 그곳에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1) 시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자기 자신 중 누구를 앞에 놓았나요?

(2) 대답: 아버지의 뜻

(3) 점수: 1,000,000,000,000,000,000,000,000,000점!

(4) 결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필요가 없게 됨.

이 시험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실패의 핵심 요인은 교만입니다. 이 사실은 놀랄 것도 없습니다. 욥기 41:34은 마귀(Leviathan)가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자신을 교만에게 내어주면 마귀를 당신의 왕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로 든 사람들의 실수를 사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실패한 사람 중에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경우 아담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즉시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야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 났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를 때는 그 시험 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고 충고나 지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지침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기 예로 든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이 한참 지난 후에 되돌아 보아야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당신이 해야 할 질문들

당신이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1. 시험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인가?

아닙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면 당신은 스스로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준비 자체가 시험의 결과를 무효화합니다.

2.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당신이 될 수가 없겠지요.

3. 시험이 다가올 때에 저것이 내가 치를 시험이다. 그렇게 미리 예측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매번 치르는 시험은 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야곱과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자기에겐 곧 닥칠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화려한

조건 아래에 살고 있었고, 다윗의 경우에도 위대한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성공의 시기였습니다. 에스터 역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시험을 치를 때에 미리 알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사전 경고는 없습니다. 시험이 언제 오는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즉 항상 영적인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서 당신이 시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4. 시험이 다 끝났을 때 내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 시험을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것을 읽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아! 그때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었구나”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위의 사실들이 당신이 시험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군인인데 적군이 있는 마을을 조심스럽게 당신 혼자서 행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한 적병이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는 모릅니다. 단지 공격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곧 육탄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육탄전을 대비해서 당신은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고전 9:27)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에 대

한 반응을 늦출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히 12:1). 그리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생각 곧 위험한 그 공격자에게만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입니다(벧전 1:10-11). 무엇보다도 그 적병과 마주쳐 싸울 때 결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가올 그 시험에 대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하면 교만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은 유익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당신의 육신과, 교만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당신의 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좋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때에 아마 목사에게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도 겸손하게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면 당신은 마귀 같은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2. 성경에 깊이 잠기십시오.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갈 때 그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좋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본성에 속한 사악함은 억누르고, 영적으로는 당신을 강하게 해 줄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3. 당신의 자아를 키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엄청난 무언인가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룬 업적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직업에서 그랬든지 스포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되 당신이 이룬 업적의 위대함을 음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의 신학대학교의 훌륭한 교수 한 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에 관한 리뷰는 읽지 마십시오”. 달리 말하면 착한 사람들이 당신의 업적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머리로 들어가든지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4. 굴욕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모두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하나, 굴욕을 당하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때로 멍청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들을 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준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육신을 점점 살찌게 하는 것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제거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옷차림, 농담, 취미 등이 의심스러운데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육신을 강화시킬 뿐 영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은밀한 죄들을 제거하십시오.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아마 어쩌면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아니면 경건한 음악을 듣거나 근엄하고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미파(Amish)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조용히 수도생활, 경건생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과 어울리지 말고 한 두 발짝 쫘 뒤로 물러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는 것을 즐길 수 있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최고의 기쁨

당신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평범한 희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당신이 시험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매일 매일의 희생이 그래프에서 수평으로 그어진 금이라고 한다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정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 드리는 순간,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것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하여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준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9장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지금부터 10,000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십만 년 후에는? 천만년 후에는? 어느 곳엔가는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은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불 호수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세계에서 당신 자신의 특별한 유익은 무엇이 될까요?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당신이 얻은 보상이 바로 당신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잠깐 머리를 써 봅시다

당신도 알다시피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 영원이라는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선으로 표현한다면 끝이 없는 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왼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른 쪽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왼쪽을 쳐다보면서 영원한 과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그 시절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통과하고 그리고 더욱 더 과거로 가서 노아가 살던 시대도 통과하고, 그리고 아담이 살던 시대에 이르고 창세기 1:1의 시간이 시작되던 그 전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끝없이 계속 가

고 있지요? 그 때에는 땅도 없었고 별도 없었고 태양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그 영원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향해서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시지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의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살게 될 때, 이 땅에는 우리가 정말 다행히도 피해갈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환난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스릴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년, 십 만년, 십억 년, 계속해서 더 나아가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당신에게 남게 될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 보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신이 얻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제한적(7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 인생 70년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종이 한 장을 접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의 접힌 면 모서리가 보이겠지요? 이 종이의 왼쪽이 영원한 과거이고, 이 종이의 오른쪽이 영원한 미래라고 한다면 이 종이의 접힌 면 모서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70년 인생의 길이입니다. 영원을 생각할 때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를 섬김으로써 당신은 무엇인가의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그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분을 그렇게 섬긴다면 어쨌든 보상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종이의 접힌 면 모서리를 보십시오. 당신의 창조주를 매일 같이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영원한 즐거움을 희생하면서까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무슨 개인적

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접은 종이를 보십시오. 인생 70년 동안 황홀함 가운데 기쁘게 산다고 해도 영원에서 본다면 그 70년은 눈 깜빡 할 시간밖에는 안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순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5억년 보다 더 긴 영원한 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황홀한 삶을 희생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끼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골프대회 트로피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그분께서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타이틀, 당신의 경제력,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당신이 행한 일을 보시고자 매일 매일 당신의 삶을 검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했지?” 라고 물으실 때,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저는 구령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덮고, 구령하러 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당신이 이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책을 여러분이 구령을 하지 않는 핑계로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구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최상의 것이 구령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구령은 하는데 거짓말쟁이도 있고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령한다는 구실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정당화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구령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저지른 어떠한 잘못도 그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선한 일, 즉 구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창조주께 매일 매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숙한 방식으로 생활하려 한다면, 구령만으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요구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도덕한 구령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서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룩한 삶도 마치 구령에는 방해물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구령을 넘어서서

구령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령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보다도 이 땅에는 더 높은 수준의 더 큰 목표가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려면 아마 불편한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저주하실 수도 있는 인간을 위해 구령자 한 부대를 보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할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인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에 미소 짓기 위해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두셨고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에게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지음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 없겠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장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지금까지의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 버릴까? 교회에는 출석할 것인가? 자기 육신에게는 “안돼” 라고 말하고 죄들을 중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책을 과연 읽을까?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과 할 것인가?

구령은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구령에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령 이상의 것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매일 매일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해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모든 것을 구령으로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당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잠시 잊고 방황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위대한 성경책에서 단 한 구절을 이해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 4:11).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4년 3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❶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❷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 Samuel C. Gipp



사무엘 C. 킵 박사는 목사, 복음전도자, 성경 교사,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며 강연회 강사입니다. 그는 많은 양의 정보를 단순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의 강력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설교 스타일로 인해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와 성경강연회 연사로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킵 형제는 킹제임스성경의 옹호자로 유명하며 TV프로그램을 통해 킹제임스성경을 공격하는 학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www.samgipp.com

www.daystarpublishing.com

출판인 : 김영균

-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도서출판 포도원
- * 알렉산더 히슬롭, 〈두 바빌론〉, 도서출판 안티오크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도서출판 킹제임스 외 다수

